

칼럼

김 화 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 우버 소송과 사외이사 독립성

국내에서만 아니라 세계각지에서 이런저런 논란과 법률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라이드 셰어링 서비스 회사 우버(Uber)가 2015년에 구글과 문제를 일으켰다. 우버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 트래비스 캘러닉(Travis Kalanick)이 업계에서 'AL'로 통하는 구글의 한 엔지니어를 스카우트하려고 시도했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우버의 명운은 자율주행차의 실용화에 달려있고 있다. 우버는 소프트뱅크, 토요타가 지분 참여한 자율주행차 개발회사(Uber ATG)도 보유하고 있다. AI는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 부문 선임 엔지니어였다.

2016년 1월에 AI이 이끄는 십수명의 구글 엔지니어들이 '오토'(Ottomotto)라는 회사로 이적했다. 오토는 신설된 회사인데 독자 사업이 없고 주주는 AI의 자택이었다. 우버는 오토를 단돈 1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한다. 즉, 인제 스카우트를 M&A로 둔갑시켜 진행한 것이다.

우버는 오토를 인수하기 전에 나름 기업실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버 측은 스트로즈라는 디

지털 포렌식 전문기업을 고용해서 구글 출신 엔지니어들이 구글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나왔는지 살피보았다. 그 결과 구글 출신들이 상당한 분량의 파일을 구글에서 들고 나왔고 스트로즈의 조사에 즈음해서 은밀하게 파일을 삭제하려고 시도까지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조사결과 우버의 법무실장과 우버의 외부 변호사에게 전달되었다. 변호사는 (이사회가 아닌) 캘러닉에게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 오토 인수를 부정 의견을 냈다. 그러나 2016년 4월 11일에 우버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이사회는 오토 인수를 승인했다. 이사회는 기업실사 일반에 대해 논의했으나 스트로즈 보고서는 이사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2017년 2월에 구글은 오토와 우버에 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 이 소송은 화해로 끝났는데 우버가 2억4500만 달러 가치의 우버 주식을 구글에 지불하는 조건이었다. 우버는 AI도 해고했고 6월에는 캘러닉도 최고경영자직에서 내려왔다(이상 미국 로펌

프리드 프랭크의 사실관계 정리). 회사의 경영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을 때 회사는 해당 경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결정은 물론 이사회가 내린다. 그런데 이사회가 현직 경영자는 물론이고 얼마 전까지 같이 이사회에 있던 전직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일단 어렵다. 이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미국법은 우리 상법과 달리 사외이사들에게 역할을 부여한다. 사외이사들이 판단해서 소송제기를 결정하게 한다. 사외이사들이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면 거기서 끝난다. 주주가 따로 소송을 할 수 없다. 불합리해 보이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변수가 바로 사외이사의 독립성이다. 법원이 판단하기에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에 독립적이면 거기서 끝내고 아니면 주주에게 대표소송을 허가한다.

2018년 12월에 우버의 주주 한 사람이 캘러닉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원래 이사회에 먼저 소송제기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 원고는 이사회가 아예 독

립성이 없다고 보아 직접 제소한 것이다. 우버는 원고가 이사회에 먼저 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소송을 중단시켜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고 1심 법원은 우버 사외이사들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2020년 1월 13일에 델라웨어 주 대법원도 1심 법원 판결을 인용했다(McElrath v. Kalanick).

미국 판례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은 추정되지만 특별 가능하다. 특정 사외이사가 소송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이사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경우 독립성 추정은 배제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상당히 기계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하고 있다. 최근에 새로 도입된 사외이사 임기 제한도 그 범주에 든다. 이런 방식은 지나치게 넓은 범위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동시에 점차 실제 할 위험성도 안고 있다. 미국 판례를 연구해서 필요한 방식은 채택할 필요가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우버는 2019년 5월 모건스탠리 주관으로 기업을 공개했고 캘러닉은 2019년 말에 이사회에서도 물러나면서 25억 달러 이상의 우버 주식을 처분하고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완전히 떠났다. 이제 우버 사외이사들은 캘러닉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를 검토해야 한다.

### 社 說

### 대한민국 국회 현주소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정치판은 아직도 이합집산이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합당해 미래통합당을 출범시켰으며, 호남에 기반을 둔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역시 24일 합당 절차를 마쳤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자유통합당 김문수 대표도 합당 절차에 착수했으며, 25일에는 우리공화당에서 제명된 홍문종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앞세운 '친박신당'을 창당한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뒤늦게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지만 정치권은 총선 의석 확보에 혈안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하지만 손바닥 뒤집듯 이리저리 돌려다니는 모양새를 보면 한심한 수준이다.

국회의 선거구 획정 논의도 별생사남다. 4·15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정확한 지역구 구도가 나오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 정수와 맞물린 문제인 만큼 최소

한 선거일 1년 전에 결정해놓아야 당리당략에 치우치는 게리맨더링을 피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전혀 모르는 모양이다. 이 때문에 예비후보들은 당장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로 바뀔지도 모른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선거구를 획정한 뒤 특정 정당 후보에게 묻지마식 투표를 하라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우리 정치사에 처음 도입되는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누더기가 되고 있다. 이미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이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인적 자원까지 몰아주며 연동형 비례제를 목사발 만들었는데 집권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위성 정당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하지만 손바닥 뒤집듯 이리저리 돌려다니는 모양새를 보면 한심한 수준이다.

국회의 선거구 획정 논의도 별생사남다. 4·15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정확한 지역구 구도가 나오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 정수와 맞물린 문제인 만큼 최소

####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알고콜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소방차, 구급차에게 소방통로를 확보해주십시오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은 지 얼마되지 않아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수선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를 위해 30초 이상 손씻기와 올바른 기침예절 숙지 및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 방문 및 유사 호흡기 환자 접촉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발견되면 관할 보건소, 1339로 전화해서 상담받길 바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변

에서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지속 발생하고 있고, 겨울철의 끝자락이라고 하나, 건조기인 봄철이 다가오면서 화재 출동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우리 소방관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이다.

“국민들이 함께 동참하는 소방차, 구급차 길 터주기다.”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아직도 가슴 떨리는 순간이 있다면 내 이웃의 주택 화재와 심정지 상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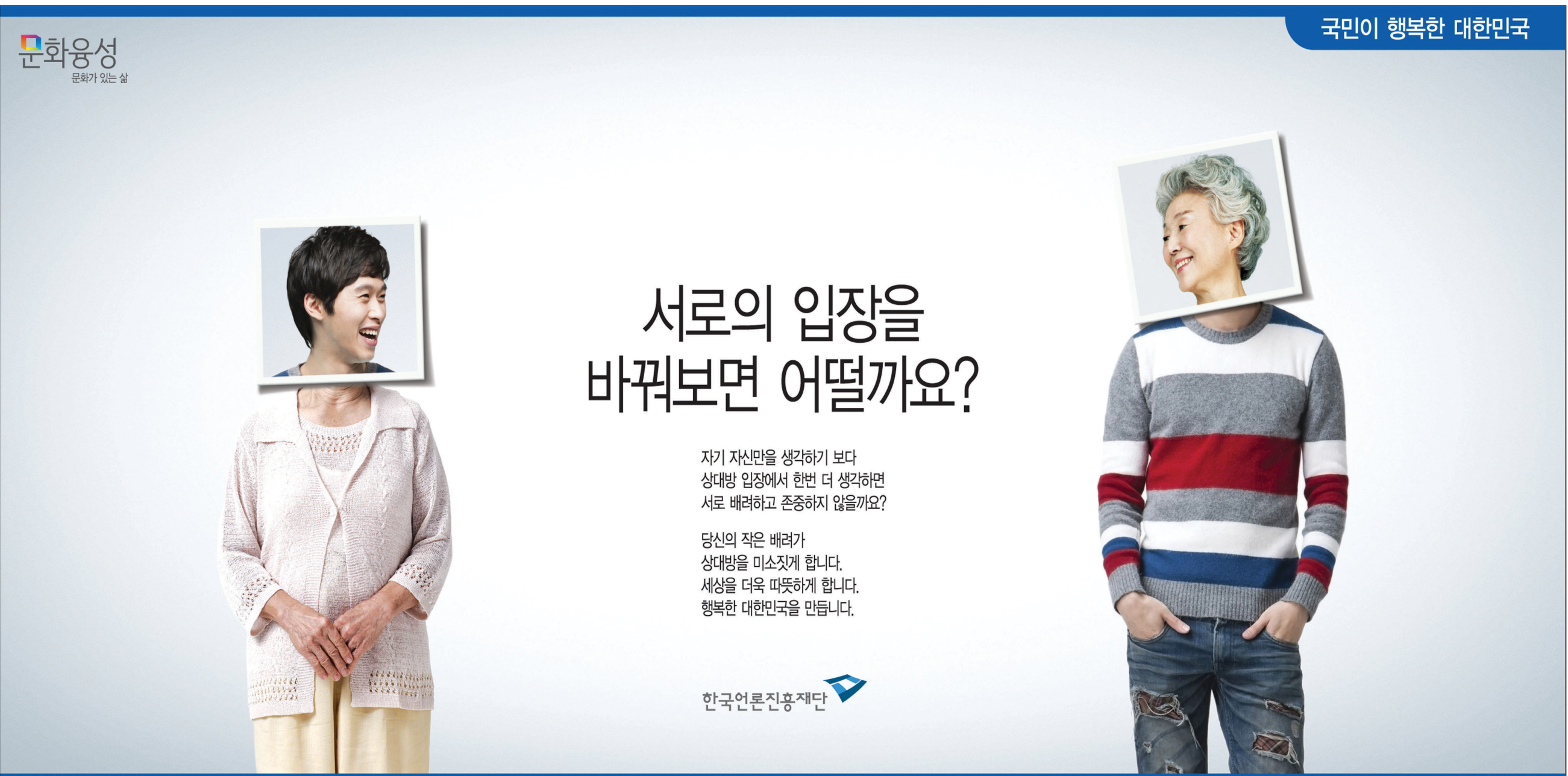
다. 심정지 상황에서 119상황실에서는 우선으로 심폐소생술을 지도하고, 현장대원은 도착과 동시에 CPR을 실시한다. 그 후 병원 이송 전까지 구급대원은 요구급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좁은 차안에서 가슴 압박 등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4~6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응급처치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뇌손상이 시작되고 더욱 많은 시간이

지체되면 사망하고 만다. 화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방차량이 5분 이내에 현장 도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대에 의한 인명·재산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소방차에서는 매일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지도하고 통로 확보를 위한 주민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결국 긴급 출동은 소방관과 주민들이 함께 이웃을 살리고자 하는 의식이 합쳐져야 달성된다.

한성준 / 영암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p>등록번호 광주기 0021 (영간)</p> <p><b>호남신문</b></p> <p>대표전화 (062) 229-6000</p> <p>광고국 (062) 224-5800</p> <p>기사제보 (062) 971-7400</p> <p>팩스 (062) 222-5547</p>	<p><b>회 장 · 발 행 인 · 편 집 인 김 평 호</b></p> <p><b>편 집 국 장 직 무 대 리 서 선 옥</b></p> <p>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p> <p>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p> <p>Tel (02) 2238-0003</p> <p>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p> <p>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p>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	--